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영여권 불자 네 터즌들이 가장 많이 클릭하는 사이트 중에는 '달마링(Dharma Ring)'이라는 사이트가 있다. 접속 횟수가 말해주듯, 이 사이트에는 특별한 '무엇'이 있다. 가상공간에 개설된 불교 관련 사이트 중에서 300여 개의 우수한 사이트를 선정, 연결해주는 '인증마크제'가 그것이다.

인터넷시대 막자라도 타자
 사이버 불국토 만들자

인터넷에는 수 만 개의 불교 사이트들이 개설되어 있어 불자 네티즌들은 언제든 정보를 열람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신뢰와 안전을 한번쯤 의심하지 않은 불자 네티즌은 없다. '달마링'은 이러한 의구심을 떨칠 수 있게,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사이트의 첫 페이지에 정보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보증해주는 '청색 리본'을 달아 주고 있는 것이다.

사이트의 생명은 네티즌의 손가락에 달려있다. 클릭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사이트의 수명이 길고 짧아질 수 있다. '달마링'의 청색 리본이 사이트의 고품질을 조이고, 양질의 정보를 업그레이드(갱신)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달마링은 영문을 제공하는 사이트에만 '청색 리본'을 발급하고 있다. 국내에서 매년 늘어나고 있는 불교 사이트의 정보를 평가해줄 수 있는 장치는 현재로서는 없다. 국내 불교계에는 '달마링'의 역할을 맡을 곳이 없기 때문이다.

국내 불자 네티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혹은 '야후' '삼마니' 등 검색 사이트의 색인서비스에 의존할 뿐이다. 국내 불교 사이트의 정보에 대해 정확성·시기성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제도가 없다는 데 원인이 있다.

이와 관련, 교계 인터넷 전문가는 "이 제도는 교계 정보화의 양(量) 뿐만 아니라 질(質)까지도 향상시킨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사안"이라며 "종단과 신문 등의 공신력 있는 곳에서 인증마크제를 운영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gobsoo@buddhania.com)

대한불교예술원

■담집·학자 법당내부 시공·수리 전문
 ■목형화·영단·대웅전·단청·명화 복사

☎ 02)930-1681 / 011)336-5200

전자신도카드 전국 확산

보광사 등 8개 사찰 사용 봉은사·능인선원 등 준비중

전자신도카드 사용이 전국사찰에 확산되고 있다. 현재 전자신도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사찰은 8곳에 이른다. 서울 수유동 보광사(주지 정인)가 교계 처음으로 지난해 8월부터 5천여명의 신도들에게 전자신도카드를 보급하여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사용중이다. 강남 봉은사 능인선원에서도 전자신도카드를 사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전국사찰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신도들에게 성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한 뒤 발급하는 전자신도카드에는 신도의 주소, 가족, 연락처, 각종 법회의 참석 유무, 기도회 납부 현황 등이 입력돼 있다. 카드만 있으면 필요한 정보를 언제든 출력할 수 있다. 또 사찰, 수행단체, 법회 참석, 연행·직업·지역별 신도분포 현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전자신도카드 사용에 따라 종무소에서는 신도들의 분주함이 사라지고, 문서 등의 수기작업이 없어졌다. 또 신도들의 수행내역과 활동사항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신도교육체계와 포교활동 자료로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신도들도 지급된 카드를 이용하여 수행내역을 즉시 확인할 수 있어, 예전처럼 종무소 앞에 줄을 서서 자신의 수행참가 내역을 문의하고 접수하던 관행이 사라졌다.

보광사 신도 이옥자씨(서울 강북구 수유 4동)는 "언제라도 카드만 넣으면 내가 참여한 수행내용과 보시금



○전자신도카드 사용이 대형사찰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보광사를 찾은 한신도가 전자신도카드를 신청할 때를 촬영한 모습.

사찰=고영태 기자
 구하다보면 자칫 사찰이 지닌 '원포'의 역할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우려하는 불자들도 적지 않다. 김일우 기자 (www.kim@buddhania.com)

"공원제도개선 공청회 열자"

조계종, 정부 등에 제안

국립공원 제도개선위(공원제도개선위) 구성과 관련, 조계종 총무원원은 이달 말 구성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20일째 관련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향후의 기획실 기획과장은 5일 "공청회를 통해 공원제도개선위 구성 일정과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청회에는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국립공원 정공 교수와 환경부, 문화재청 관계자들을 참여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조계종은 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문화재보호법 개정, 국가공원 청신설 등의 제도개선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문화재보호법의 경우, 39조에 입장표 징수 조항이 있으나, 모호한 표현으로 민원의 소지가 되고 있다고 판단,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성운 기자

도심사찰에 교통유발부담금

내년부터...건물 연면적 300평 이상 해당

내년부터 도심지역 사찰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된다. 건설교통부는 사찰을 비롯한 도심지역의 각종 종교시설과 정당, 학교용 시설물, 국공립공원 등 실제로 교통유발이 많은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을 마련, 4일 입법예고하고 올해 정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건물 연면적 300평(1000㎡) 이상의 사찰들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 그러나 차량 10부제나 단체버스 등 교통감축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 최고 90%까지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1㎡당 350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산정방법은 시설물 각종 바다면적의 합계와 단위부담금(350원)을 곱한 수에 건교부가 산출한 교통유발계수를 다시 곱한 것이다.

물을 소유하고 있는 조계사의 경우 1년에 880여만원을 내야 한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지역은 서울을 비롯한 부산 대구 인천 등 7대 광역도시와 수원 성남 의정부 등 인구 30만 이상 12개 시. 그러나 춘천 천안 군산 광주 등 인구 10만 이상 30만 이하의 13개 시는 도지사의 승인을 났을 경우에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이 지역 외의 사찰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nia.com)

조계종 '환경위원회' 구성

정책입안·분쟁해결 방안 등 수립

조계종의 환경정책을 입안하고 심의하는 환경위원회가 총무원장 직속기구로 구성된다. 사회부는 종단환경정책 마련, 환경교육 계획수립 및 실시, 사찰의 친환경적 불사지침

사찰 주지대표, 환경전문가 등이 참여해 '사찰정책분과'와 '환경환경분과'로 구성되며, △개발사찰 환경분과에 종단적대처 △종단환경정책 마련 △환경교육 계획 수립·실시 △사찰의 친환경적 불사지침 마련·적용 △사찰의 친환경적 운영계획 마련·적용 △환경연안에 대한 정책 및 해결 방안 마련 등을 담당한다.

사회부는 13일 종단총회를 초청, 환경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어 위원회 구성 일정, 활동 내용 등을 논의한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nia.com)

제3회 '부다피아 어린이캠프'

자연과 함께 부처님과 함께

현대불교신문은 불교 알선의 주인공이 될 새싹불자를 키우기 위해 제 3회 부다피아 어린이 여름캠프를 연다. 2교구 본사 용주사와 에버랜드의 자연 속에서 공존해 생활을 익히면서 건강하고 맑은 심성을 길러주게 될 부다피아 캠프는 어린이들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것이다. 여름방학을 이용해 불교문화 체험하고, 에버랜드 동나 무지개에서 생활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피부로 느끼는 등 멋지고 신나는 부다피아 캠프에 많은 어린이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7월 20-22일
 에버랜드·용주사

◇일 정 : 2000년 7월 20일(목)~ 22일(토)
 2박3일(사찰 1박, 에버랜드 용나무지개 1박)
 ◇장 소 : 용주사, 목야박물관, 에버랜드
 ◇대 상 : 초등학교 1~6학년(선착순 250명)
 ◇참 가 비 : 6만원
 ◇준 비 물 : 도시락, 수영복, 수영모자, 필기도구, 세면도구, 모포
 ※출발: 20일 오전 10시 조계사 / 도착: 22일 오후 5시 조계사
 ◇문의 : 전화 080-717-0114, 011-317-2555
 ◇은행계좌 : 농협 100030-52-039999 (예금주: 이상훈)
 · 주최 : 현대불교신문사 · 주관 : 선재이벤트
 · 후원 : 조계종 포교원·진각종 통리원·조계사·한아름선원·봉은사·삼보사·보덕학회·(사)한국불교교회복지선도회

정성운 기자

왜 포스코를 한국경제의 수문장이라 부르는가!

물기없는 공역의 시작이자 승리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때문에 직전승리와 인공상에서 최고의 신임을 가진 포지션으로 불립니다. 빈틈없는 세계주식시장에서 국제무대에 내몰아도 손색이 없으며, 국가명예를 높일 수 있는 최고의 인성을 갖춘 기업 포스코. 많은 경제전문가들과 증권가에서 우리 한국경제의 수문장으로 포스코를 꼽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가장 신뢰할 수 없는 한국경제의 자존심 포스코. 늘 조종에 그리고 꾸준하게 그 임무를 지어갑니다.

소문없이 부상을 통치합니다
POSCO
 www.posco.co.kr